

창립 26주년 기념사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창립 26주년을 맞으며,
깊은 감사와 헌신을 다짐하며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도 주님이시오
불들어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익숙했던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왔을 때,
혼돈과 공허뿐인 줄로만 알았지만,
오히려 풍성한 새 창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첫 달로 삼으심으로 시간을 새롭게 하였고,
성막을 만드심으로 공간을 새롭게 하셨으며,
무리들을 10명 단위로 묶으시면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광야가 도리어 축복이며 은총이었습니다.

지난 한해는 어느 해보다 힘든 한해였습니다.

진도 앞 바다의 거센 물결이 온 교회를 힘들게 했고,
불법 편법 탐욕 우상숭배가 선실로 밀려 들어와 함께
아우성했습니다.

믿음으로 버티는 것조차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내실 것이며,
거친 반석에서 샘물 내신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실 것이며
날마다 날라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실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더 깊은 찬송과 노래를 부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부를 찬송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여, 새 역사를 이루소서!

박원호 담임목사

언젠가부터 보이지 않는 한 사람

교회 담 밑에 앉아 구걸하던 노숙자 아저씨가
언젠가부터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이 주님의교회에 오신다면
가장 먼저 만나보실 것 같은 그 사람
항상 얼굴은 까맣고, 새벽엔 박스 깔고 누던 그 사람
빈 자리에 햇살 한 자락 떨어지고 있다

교회 이론지 스물여섯 해, 다시 만나면
예수님과 함께 손잡아야 할
그 사람

2014

주님의교회 전교구 수련회

“하나님나라와 평화”

새 피막을 안고 시작한 2014년도 별세 반의 일지라 세 있습니다. 우리는 할 일이 많고 할수록, 때때로 핏빛으로 베이지 못한
일들로 인한 '버거움'이 우리 앞 한탄에 문득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대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끊임없이 경건하며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또다른 아름다운 달을 짊을 위해 잠시 몸과 영혼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1차 1교구 ~ 5교구
2014년 7월 4일(금) ~ 7월 5일(토)

2차 6교구 ~ 10교구
2014년 7월 11일(금) ~ 7월 12일(토)

장소: 치악산 명성수양관 (주님의교회에서 1시간 30분)
강원도 원주시 신원면 신원리 158-15 (신원IC 2분거리)

주님의교회

주님의교회, 간추린 그 정신의 역사

청년이 된 26살 주님의교회, 남다른 신앙의 발자취

주님의교회는 지난 26년 동안 남다른 신앙의 발자취를 걸어왔다.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재정의 50%를 선교와 구제로 지출하고, 봉헌은 무기명으로 하며, 당회원의 임기제를 실시하는 등 독특한 여러 제도를 만들었다.



주님의교회 첫 봉헌 전액을 헌금한 전남 모도 온동네 교회. 창립하던 해 8월 10일 삼일기도회 시간에 이 헌금을 온동네교회 교역자에게 전달했다. 그해 추수감사주일 헌금 전액도 선교와 구제로 사용했다.

교회의 초기, 남다른 창립 정신을 지닌 구성원들이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어느 교회와는 다른 제도를 만들었고,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를 정착시켰다. 교회의 중요한 제도를 확립한 초창기 10년에 이어 교회의 구성원들의 내적 성장과 헌신을 위한 훈련의 시기가 잇따랐다. 아무리 좋은 교회 제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성도들이 경건과 헌신과 봉사를 위해 훈련되어 있지 못하면 그 가치를 제대로 드러내기 어려울 것이다. 성도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성도 각자의 내적인 신앙 훈련과 이웃을 섬기는 훈련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였다. 초창

기 10년이 제도를 통한 외적 개혁에 힘쓴 시기였다고 한다면, 이 시기는 깊은 영성으로 내면화하기 위한 내적 개혁이 필요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안타깝게도 예측하지 못했던 담임목회자의 이른 사임으로 이 내적 개혁은 지속되지 못했다.

이어진 시기에서는 잘 구성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회의 행상들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었다. 교회재정의 25%를 청소년 사역에 투입하기로 했고, 기독교 신앙에 친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전도프로그램과 교육과 의료를 통합하여 추진된 해외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교회 구성원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친교 프로그램인 무지개 축제가 진행되었다. 반면, 교회 공동체의 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다른 교회에서 주님의교회로 옮겨 오는 성도들에게 교회의 정체성을 알리고 이를 개인적인 경건과 헌신으로 내면화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1989년의 방글라데시 선교 현장. 주님의교회는 헌금의 50%를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기로 한 창립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창립 이듬해에는 해외선교에도 관심을 돌려 선교사를 후원하기 시작했다.

이후 교회는 ‘목적이 이끄는 40일’과 ‘겨자씨 모임’을 통하여 기존의 구역모임을 새롭게 가다듬는 한편, ‘예수친구사역’을 통하여 전교인들이 제자화 훈련을 받게 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했다. 사단법인 ‘섬김과 나눔’을 설립하여 이웃을 섬기는 사역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다.

26주년을 맞은 주님의교회는 창립 당시 가졌던 목표와 전통을 미래에 이어가기 위해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est)는 개혁교회의 표어는 지금-여기에서도 유효하다. 주님의교회의 창립 정신은, 바로 ‘개혁의 계속’에 의해 미래에도 구현될 것이라고 믿는다.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주님의교회 정관에는 실천이념으로 “본 교회는 선교와 구제를 교회 창립 정신의 근간으로 하여 청소년 사역에 노력하며, 원칙적으로 예배당을 소유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님의교회의 선교와 구제정책의 핵심은 ‘50대50 정신’이다. 창립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지키기 위해 공동체는 부단히 노력해 왔다.

‘50대 50 정신’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고백이며, 이웃을 향한 나의 희생과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정신의 다른 표



사단법인 섬김과 나눔의 주요 활동 중 하나인 독거노인을 위한 죽 배달. 2000년 들어서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자, 노인 복지는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사회의 관심사가 되었다. 사단법인 섬김과 나눔은 노인 복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현이다. 이는 항존직과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내면화해야 할 정신이다. 몇 가지 제도를 만들어 지키고 있다는 것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성도 각자 또한 교회 안팎에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온 우주를 아우른다. 지금까지 주님의교회가 노력해 온 것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고 돕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사회를 포함한다고 이해한 것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교회 창립정신을 좀 적극적으로 이해하여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계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여겨진다.

함글함글

신앙실천 자가진단

1. 말씀을 묵상하며, 그 깊은 뜻을 이해하려 힘쓰고, 예배를 소중히 드리고 있는가?

2.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20)는 말씀에 따라 교회의 여러 교육 과정과 청소년을 위한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가?

3. 선교와 전도에 참여하고 있는가?

주님의교회의 정체성과 지향점을 바탕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를 얼마나 실천하고 있을까? 말뿐인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진단해 보기 위하여, 교회의 5대 사명인 ‘예배, 교육, 선교, 구제, 교제’를 바탕으로 질문을 구성해 보았다.

가. 매일 한 시간 이상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를 거르지 않는다.

나. 매일 삼십분 정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를 거르지 않는다.

다. 매일 성경을 시간 나는 대로 읽고 묵상하며, 주일 예배를 거르지 않는다.

라. 틈날 때마다 성경을 읽지만 매일 읽지는 못하며, 주일 예배를 거를 때가 있다.

마. 성경은 거의 읽지 못하며, 주일 예배를 거를 때가 자주 있다

가. 세상의 가치와 다른 주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교회의 여러 교육 과정이나 청소년 양육에 오랫동안 참여해 왔다.

나. 세상의 가치와 다른 주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교회의 여러 교육 과정이나 청소년 양육에 어느 정도 참여했다.

다. 기회가 있는 경우 교육 과정이나 청소년 양육에 잠깐 봉사했다.

라. 청소년 양육이나 교회 교육에 관심은 있으나 봉사할 시간이 없다.

마. 교회 교육에 큰 관심이 없다.

가. 매년 새 신자를 교회로 인도하고 있고, 국내외 선교 활동에 매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나. 때때로 새 신자를 전도하고 있고, 형편 닿는 대로 국내외 선교 활동에 참여한다.

창립 성도의 회고

비움의 정신으로 주님 뜻 따른 26년

주님의 교회 창립 26주년 기념 주일을 맞이하면서 형언할 수 없는 감사로 가슴이 벅차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오늘까지 주님의 교회의 모든 과정을 지켜본 저로서는, 특별한 은혜가 감격스러울 따름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주님이 이끌어 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이름 지은 이유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교회이름 자체가 파격이었고 노회 가입조차 힘든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라는 진심은 통했고 마침내 평양노회의 허락을 얻어, 주님의 교회는 이 땅에 우뚝 서게 됐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님의 삶과 행함에 주목할 수밖에 없고, 교인 모두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고”(빌2:5) 순종하니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이 이뤄지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 현현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빌2:7) 오직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습니다. 주님이 베푸는 사랑과 은총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자기를 비울(self-giving) 수 있을는지, 더욱 기도하게 됐습니다. 어떡하면 주님처럼 주님의 몸 된 교회도 스스로를 비울 수 있을까, 겸손함으로 특권과 권위와 유익을 스스로 내어 줄 수 있을까... 창립 초기의 교우들의 고민과 기도 제목은 교회로 하여금 선교와 구제 예산을 반으로 비우는, 절반을 내어주는 결단을 내리

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50대 50을 실천하자 부서마다, 사역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 주님을 따르고자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마16:24)하는 실천적 의미로 무기명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중심을 보는 하나님 앞에 삼가 두려운 마음으로 은밀하게, 그러나 온전한 헌신을 드리 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어 준 지난 26년간의 은혜와 축복을 이 짧은 지면에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니, 교우들도 교역자를 볼 때 하나님이 보낸 주님의 사자로 더욱 귀하게 여기기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이 보내 주신 교역자를 잘 섬기고 협력하고자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진다고 해도 교역자들을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게 되었고 또한 교역자들도 신실하게 교인들을 신실함과 사랑으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담임목사 10년, 부목사는 6년으로 임기를 정했습니다. 교역자들의 사역에 대한 전문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원로목사와 원로장로 등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갈등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당회원들도 위임목사와 같이 임기를 10년으로 해 온전히, 겸손히 교회에 충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가족중심주의와 자본주의 경제로 짜

여진 한국 사회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한국교회는 대형화되고 말았습니다. 대형교회는 세습을 정당화하는 억지주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교회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교인들에 대한 평가는 하나같이 물량적인 척도에 의해 이뤄집니다. 신도의 숫자, 건물의 크기, 예산의 규모 등을 비롯해 성직자의 사례비에 이르기까지 물량적 지표들이 목회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크고 많아야만 성공적이라고 보는 천민적 자본주의 시장 논리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셈입니다.

교회세습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신앙고백의 결여에서 비롯됩니다. 주님의 교회처럼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교회 안에 온전히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혈연에 의거해 담임 목회자를 세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습옹호의 중요한 근거인 성장주의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신앙고백 대신 ‘물량적 가치관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신앙고백을 무의식적으로 노출합니다. 이는 물신(物神)을 하나님같이 받드는 명백한 우상숭배입니다.

주님의교회는 다릅니다. 교역자, 장로들과 향존직들을 포함한 전 제직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에게 순종하자 주님은 주님의 교회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26년 전의 초심

을 잃지 않고 첫사랑을 회복해 주님만을 따르기로 다짐한다면 앞으로 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더 벌어질는지, 가슴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주님의 교회는 대형으로 치닫지도, 세습을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직한 청지기로서의 소명에 충실할 뿐입니다. 물욕과 거짓으로 사로잡힌 오늘의 이 땅의 교회들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 살펴보게 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는 가난할 때 영적으로 충만했지만, 부유해지면서 영성을 잃었습니다.

교회론, 기독교론, 소명론의 관점에서 세습은 정당화될 수 없을뿐더러 복음을 변질시키고 교회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교회세습은 복음전파를 어렵게 하고, 소금과 빛된 복음의 변혁적 능력을 상실케 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더더욱 정직하고 성실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립초기의 결단을 잘 지키면서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주님에게 순종하는 26세 새벽이슬과도 같은 청년교회로서 이 땅의 이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아우를 수 있을 것이며, 주님이 눈동자처럼 아끼는 영적 전성기로 접어들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50대 50의 나눔, 무기명 헌금, 목사와 장로의 임기제”라는 3대 미덕이 기능하는 한, 주님의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양동훈 은퇴장로

4.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따라 이웃을 위해 희생과 수고를 실천하고 있는가?

5. 교회 공동체 내의 여러 모임을 통해 참된 교제를 실천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우리 교회의 창립 정신을 실천하고 있을까?

- 다. 새 신자를 전도한 경험이 있고, 선교 활동에도 관심이 있다.
- 라. 전도 활동을 한 경험이 있고, 선교 활동도 해보고 싶다.
- 마. 전도와 선교에 큰 관심이 없다.

- 가. 50대 50의 정신에 따라, 나의 물질과 시간의 절반을 바친다는 마음으로 구제와 봉사를 매주 정기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 나. 50대 50의 정신을 실천하려 애쓰며 교회 밖 이웃을 위한 구제와 봉사를 매월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 다. 50대 50의 정신에 공감하며, 교회 밖 이웃을 위한 구제와 봉사를 때때로 실천하고 있다.
- 라. 50대 50의 정신은 크게 의식하지 않지만 교회 밖 이웃을 위한 구제와 봉사에 관심이 있다.
- 마. 교회 밖 이웃을 위한 구제와 봉사에 큰 관심이 없다.

- 가. 교회 밖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버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매주 겨자씨 모임 등 둘 이상의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한다.
- 나. 교회 밖 세상의 가치를 되도록 버리고, 매주 겨자씨 모임 등 하나 이상의 모임에 빠지지 않는다.
- 다. 교회 안에서 여러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즐거움으로 매주 겨자씨 모임에는 참여한다.
- 라. 때때로 겨자씨 모임에 참여한다.
- 마. 교회 공동체의 교제 모임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가: 20점, 나: 15점, 다: 10점, 라: 5점, 마: 0점

주님의 교회 제1회 통일선교학교

제11기 결혼 예비학교



주님의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일을 준비하고 북한 땅의 복음화를 위한 지혜를 배우는 통일선교학교가 5월 29일 소년부 예배당에서 첫 강의를 시작했다. 130여 명의 성도들이 참가한 이날 박원호 담임목사는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북한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다”면서 “통일선교학교를 통해 주님의교회가 북한 선교를 위한 준비를 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

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통일선교팀이 통일선교학교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주님의교회 내에 통일선교팀이 만들어진지 4년 만에 이루어 낸 성과이기 때문이다. 특히 통일선교팀에 속해 있는 탈북청년들의 심정은 남다르다. 탈북청년 김성렬 형제는 “통일선교학교를 통해 북한 복음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원철** 청년

지난 6월 8일 주일 오후 4시, “준비된 결혼이 행복하다”라는 모토의 제11기 결혼예비학교가 힘차게 문을 열었다.

문희삼 목사의 “하나님 나라와 신혼 가정”이라는 강의를 시작으로, 이명진 교수의 “부부의 아름다운 대화”, “원가족 이해와 분화”, 박상훈 강사의 “주안에서 행복한 서로가꿈 가정경제”, 이주성 원장의 “친밀한 부부의

성”등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성숙한 가정을 꿈꾸는 13커플(26명)이 3주간의 교육과 실습을 통하여 막연했던 가정에 대한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시간이 되었다. 다양한 실천적 과제와 풍성한 먹거리들이 자연스럽게 풍성한 나눔으로 이어졌다. 결혼 예비학교는 하반기에도 개설될 예정이다. **문희삼** 목사

청년부 여름사역을 위한 후원의 날

The Aroma of Christ



에서 여름 사역을 위한 후원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후원의 날은 청년들이 교회의 어른들을 만나 선교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리는 뜻 깊은 자리이다. 청년들은 국내와 해외로 선교를 가기 위해 몇 달간 용돈을 아끼고 아르바이트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기도를 부탁드리고 더불어 재정적인 도움을 요청드리게 되었다.

이날 청년들은 한달전 직접 담가서 만든 아이스레몬티를 성도님들에게 드렸다. 또한 청년부 여름사역의 주제인 ‘the Aroma of Christ(그리스도의 향기)’가 새겨진 텀블러를 제작하여 판매했고, 아이들에게는 주제가 새겨진 풍선을 나누어주기도 했다.

청년부는 지난 6월 22일(주일) 김마리아회관 입구

올해 청년부의 여름사역은 지난 26-28일 여름 수련회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이후 키르기스스탄(7/8-16), 국내선교(7/23-26, 제주 애월읍), Z국(8/14-19), 베트남(9/5-11) 순으로 선교를 감당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키르기스스탄 선교에 청년들이 처음으로 동참하게 되어 여름사역의 범위가 한층 더 확장되었다.

이번 후원의 날을 통해 청년들은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을 얼마나 사랑해주는지 느낄 수 있었다. 청년들은 그 사랑에 반응하여 ‘가는 선교사’ 또는 ‘보내는 선교사’로 이번 여름 사역에 더 열정을 가지고 함께하기로 결단하였다. 우리 청년들이 선교지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김요한** 전도사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61

素祭 (소제 grain offering)

그 소제의 고운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의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레위기 6:15)

聖經的(성경적) 意味(의미)

성결한 생애를 하나님께 약속하는 표시로 精(정)한 밀가루와 기름과 乳香(유향)을 불태우고 떡을 구워놓고 드리는 제사.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희생적 봉사와 죄 없으신 예수께서 자신을 온전히 代贖

祭物(대속제물)로 드린 거룩한 희생을 상징한다. 한편 이 소제는 구약의 5대제사 가운데 하나로서 穀物祭祀(곡물제사)이다. 또 피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로서 번제나 속죄제 속건제 등 향시 다른 피제사와 함께 드려졌다.

소제를 드리는 방식에는 다섯 가지가 있었다. ①고운가루 한 줍에 유향을 섞어 단위에 불사르는 방식. ②화덕으로 구워 無酵餅(무교병)이나 無酵煎餅(무교전병)으로 드리는 방식. ③燴鐵(번철)에 부쳐서 드리는 방식. ④술에 삶아서 드리는 방식. ⑤첫 이삭을 볶아서 쪼은 것으로 드리는 방식이다.

文字的(문자적)意味(의미)

★素(본디 소. 흰 소): 垂(드리울 수)의 변형체에 실이나 옷감을 뜻하는 糸(실 맥. 실 사)를 결합시켜 ‘베틀에 드리워진 천의 바탕색이 본디 희다’라는 글자를 만들었다.

★祭(제사 제): ‘고기’를 상징하는 肉(월육달 월, 고기 육, 몸 육)과 ‘손’을 의미하는 又(또 우)와 ‘제사그릇이나 神(신)’을 뜻하는 示(보일 시)를 결합하여 ‘고기를 손으로 장만하여 제기에 올리고 신에게 제사 지낸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함글함글**

섬기는 손 7



아직도 정상인만 중심인 사회 눈높이 낮출 줄 모르는 세상 기꺼이 장애인 손발 되는 여전히 부족한 섬김의 손

> ‘섬기는 손’은 사역 현장의 풍경을 담아 함께하기를 권유하는 작은 공간입니다. 이 사역에 동참하실 분은 김익훈 안수집사 (010-9489-8726)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함글함글**

예수님의 사랑, 온 세상에 팡팡

교육목회원의 다양한 여름 프로그램

교육목회에서 준비한 다양한 여름 학교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아기부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내 몸”이라는 주제로, 아기들이 오감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며 예배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한다.

영아부

“예수님의 사랑, 온 세상에 팡팡”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연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지는지, 인형극 예배와 사랑인형 만들기, 신체음률활동과 촉감놀이가 진행된다. 7월 한달 동안 성서학습도 예정되어 있다.

유아부

“예수님의 사랑, 온 세상에 팡팡” 주제로, 교사 인형극, 성서학습 시간, 사랑의 비누 만들기, 맛있는 간식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

유치부

“예수님의 사랑, 온 세상에 팡팡” 주제로 섬김으로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공과시간, 활동센터, 물놀이, 팡팡 찬양 축제, 쉼마뮤직 등의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유년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의 주제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사람을 구한 요셉처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꿈꾸는 시간이다. 예배와 찬양, 장기자랑, 캠프파이어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초등부

어린이들의 신앙 성숙과 아름다운 공동체 실현을 위한 여름 캠프가 진행된다. 예배, 찬양과 율동, 성경공부, 센터게임, 워터페스티벌, 조이페스티벌 등의 프로그램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소년부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의 주제로,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사람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스스로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다. 정체성 찾기, 미니올림픽 물놀이와 세족식 등이 진행된다.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세상을 섬기는 틴(teenager)”의 주제로 진행된다. 뜨거운 찬양, 말씀, 세상속으로 활동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게 나누는 삶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청소년 예천사 탐험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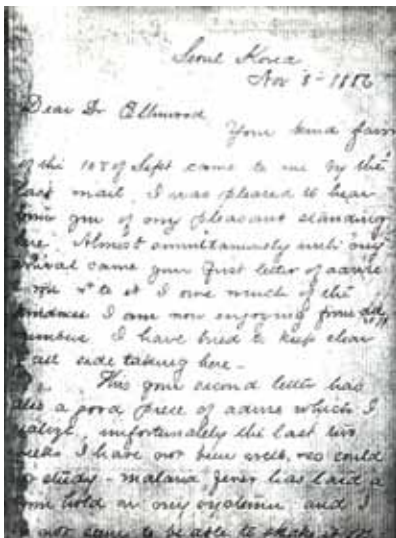
“초기 기독교 문화답사”를 주제로 강화도에서 진행된다. 이번 탐험활동에는 14명의 청소년들과 10명의 교

사들이 3팀으로 나누어 탐험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고 직접 유적지를 답사하면서 초기 신앙 선배들의 삶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권혁준 전도사

정신학원에 깃든 한국기독교의 역사 3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땅의 여성들



애니 엘러스의 편지 원문. 조선에 도착한 것을 알리는 첫 편지였다.

1991년부터 알렌, 언더우드, 헤론의 선교편지가 발굴, 번역되어 나왔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는 이러한 선교사들의 편지들이 유일하고, 상세한 자료가 되어 연구되어 왔다. 마침 우리학교는 개교 120주년 기념 자료집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나는 설립자 애니 엘러스의 선교편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장로회신학대학에서 자료를 찾던 중 저 만큼 자리에서 책을 보시는 분이 눈에 들어왔다. 바로 이제 막 주님의교회에 부임하신 박원호 목사님이셨다. 무조건 다가갔다. 그

리고 선교편지의 원본의 출처에 대해 여쭙었다. 목사님은 기꺼이 시간을 내어 마침내 원본의 출처가 있는 곳과 교수님을 소개시켜 주셨다. 마이크로 필름이었다. 대체로 친필로 쓴 모든 선교사의 편지들이 글자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해상도로 뒤엉켜 있었다. 교수님은 없다고 했다.

헌데 마이크로 필름을 찾던 김혜경 선생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달려갔다. 화면에 뚜렷하게 ‘Annie J. Ellers’의 서명을 확인했다. 숨이 막혔다. 조선에 도착한 것을 알리는 첫 편지였다. 또 한 번 그 편지의

내용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 달 반을 걸려 미개한 나라에 도착한 24살의 처녀의 편지는 이렇게 맺고 있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성들의 일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의 성령 안에서 사랑과 자비로 이루어지기를”(1886.7.10)

이희천 정신여교 교감

2014년 항존직 선거 일정 확정

<주님의교회 선거관리규정>도 제정

2014년 항존직 선거 일정이 확정되었다. 6월 정기 당회에서 의결된 올해 일정에 의하면, 8월중 추천투표, 9월의 당회 공천 투표, 10월의 공동의회 선거를 거쳐 10월 19일 최종 선거 결과가 공고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9일 임시 당회에서 <주님의교회 선거관리규정>(안)이 논의되고, 5월 12일 당회에서 제정되었다. 2013년까지는 항존직 선출을 위한 선거를 위해 ‘항존직선거관리세칙’을 매년 마련하여 당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해 온 바 있다. “이번에 선거규정을 제정한 이유는 성도들의 관심이 많은 선거규정이 매년 자주 변경되는 것이 제도의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나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규정이나 제도를 정비하고 대체할 규정으로 <주님의교회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한 것입니다.” 올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는 중책을 맡았던 김성구 장로의 설명이다. 즉, 앞으로는 특별한 개정 사유가 없는 한 선거관리규정 자체는 변경이 없되,

시행시기나 인원 등에 대해서만 당회가 의결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님의교회 선거관리규정>은, 그동안 시행해왔던 세칙을 두루 검토하고, 교회 헌법과 교리, 부작용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했다. 대부분은 그간 시행해왔던 세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몇 가지 새롭게 바뀐 내용이 있다. 첫째, 추천권자의 범위에 겨자씨 인도자와 제직부서 부서장이 추가되었다. 그동안 추천을 항존직에 한정해 왔으나, 교회의 여러 섬김의 현장과 겨자씨를 통해 활동하고 있는 교회 중직을 맡은 모든 분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특히, 겨자씨 인도자 등의 리더십을 강화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추천과정에서는 당회원들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당회원이 추천과 공천 과정에서 두번 투표한다는 논란을 피하고, 추천과 공천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기 하기 위함이다. 또한 당회원이 공천 투표를 할 때에는, 개인적 편견과 선입관을 피하고 순수하게 주님의 뜻에 따라야 함을 새기기 위해 기도회를 갖도록 했다. **함줄함줄**

2014년 항존직 선거일정

구분	내용	일자
선거제도 수립 (공고,홍보)	항존직 선거제도(안), 당회 의결	4. 9 (수)
	‘주님의교회 선거관리규정’, 당회 의결	5. 12(월)
	2014년 선거시행 공고 (전교인 선거일정 홍보)	6. 29 (일)
추천투표	추천투표 준비 (추천권자, 피추천 대상자등 명부작성)	8. 10 (일)
	추천투표 실시 (항존직등 중직 직분자)	8. 24 (일)
당회공천 투표	항존직 선거를 위한 당회원 기도회	9. 15 (월)
	당회원 공천투표 실시	9. 15 (월)
공동의회 선거	소집공고	9. 28 (일)
	공동의회 개회, 1차선거 실시	10. 5 (일)
	1차선거 결과 발표 및 2차선거 공고	10. 8 (수)
	2차선거 실시	10. 12 (일)
	2차선거 결과 및 최종결과 보고	10. 15 (수)
	공동의회 폐회	10. 15 (수)
마무리	선관위, 당회에 선거결과 보고	10. 18 (토)
	최종 선거결과 공고 (전교인 공지)	10. 19 (일)

주님의교회를 떠나며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6년 전 감사와 설렘을 가지고 청소년사역원담당사역자로 주님의교회에서의 생활을 시작하며 청소년사역원 개원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정신학원선교사역으로 함께 한 기도어머니, 사랑어머니들과 반가운학교 교사들의 헌신에 감사하고, 전국에서 오신 청소년교역자들과 20회로 이어진 세미나의 시간들도 감사합니다.

미자립교회 청소년들을 초대하여 열었던 여름캠프가 올해 6회로 이어짐도 감사이고 4년에 걸쳐 청소년교과서를 성경과 연결하여 연구한 시간도 감사입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사역 2년 동안 만났던 성도들과 세례사역에 참여했던 성도들, 새벽 헌신자 사역으로 만난 성도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에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의 미래를 준비해 주실 여호와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교회에서의 은혜로 주신 시간, 제 평생 감사하며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의교회 모든 가정 위에 주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박해성 목사

주님의교회 항존직 선거 제도의 변천

항존직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일컫는 말로, 신앙공동체의 중심 일꾼으로 봉사하는 성도를 말하며, 전교인이 참여하는 공동의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초기에는 다른 교회와 같이 교회법에 따라 당회에서 후보자를 공천, 전교인의 선거로 선출하는 방식이었으나, 인재 발굴과 다른 항존직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미에서 2008년부터 항존직에서 공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제도를 변경했으며, 2014년부터는 항존직 뿐 아니라 겨자씨 인도자와 제직 부서장도 추천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당회의 공천 투표는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①무토론 ②무기명투표 ③항존직의 추천을 얻은 성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원칙을 지키되, 성경공부,예배,봉사등 교회에 대한 책임감과 십일조및 주일성수등 신앙에 대한 기본자세, 그리고 리더십,도덕성등 인격적 측면 등을 고려하고 있다.

선거제도의 변천

연도별	추천방법
2006년 이전	특별한 추천절차 없음
2006년 ~ 2007년	- 장로는 당회원이 10명씩 추천 - 권사,안수집사는 봉사,등록,성경공부,년령등을 가중, 평가하여 추천 - 이를 당회가 논의를 거쳐 최종 공천자로 확정
2008년	항존직이 기도회를 통해 후보자 추천
2009년 ~ 현재	항존직이 투표 방식을 통해 후보자 추천
2014년	-제직부서장,겨자씨인도자 추천자격 추가 -당회원은 추천에 참여하지 않음

새로 안수받는 신임 항존직을 소개합니다.

창립 26주년을 맞는 6월 29일 3부예배에서, 신임 장로와 권사, 안수집사 총 34명의 임직식이 진행된다. 지난 2013년 10월의 항존직 선거를 거쳐 피택되어, 지난 1년간 피택자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 이날 뜻깊은 안수를 받는다. 앞으로 교회 안팎의 사역 현장에서 큰 몫을 담당하게 될 신임 항존직을 소개한다. (생년월일순)

▶ 장로 (2명)



최성준



배익환

▶ 안수집사 (15명)



도재성



현상철



정원락



이제원



김익환



탁동원



박인용



전종철



이송도



김용규



최우철



홍완식



신성철



민병준



김동관

▶ 권사 (17명)



김영조



나경희



김기남



이금순



김중희



이민자



김영미



조균실



김영례



김명자



이혜선



정옥영



박정은



김인숙



김춘자



권주리



강정임

꼬마인터뷰 | 주말새벽마다 채소 다듬은 김화진, 전은숙 두 권사

20여 년 세월, 함께 한 섬김



토요일 새벽기도회가 끝나고 주방에 내려오면 이분들을 만날 수 있다. 금요일 쫌 교회에 도착하는 무양파, 대파, 다시마 등 주님의교회 명물인 주일 국수 국물 재료를 다듬고 계시는 김화진, 전은숙 두 권사. 두 분 다 여든이 넘은 연세지만, 여전히 정정하고 곱다.

언제부터 두 분이 실과 바늘같이 함께 다니셨나는 질문에, 같은 구역이라 권사 취임하면서 같이 봉사하게 되었다고. 여선교회 회장,

중보기도팀 팀장, 초등부 교사, 영아부 교사 뿐 아니라, 주방에서 전 부치고 김치 담그는 일까지 늘 함께 해오셨다. 국수국물 용 채소를 같이 다듬어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는다.

이 분들이 6월말로 주방 봉사를 마친다. 나이도 많이 들고, 후배 봉사자들에게 사역의 길도 열어주기 위해서란다. 십년이 하루 같았다는 이분들의 조용한 헌신에, 감히 드릴 말이 없다.

함글함글

교회 단신

주한외국인 토요한글교실 박물관 견학



5월31일(토) 영어예배팀의 토요한글교실 학생 30여명과 10여 명의 교사 및 스탭들이 함께하는 야외 모임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을 견학하였다. 오전 10시30분에 이촌역에서 만나 영어와 한글해설 두팀으로 나누어 한 시간 동안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여러 유물들을 보면서 현장학습을 하는 귀한 시간을 가진 후에 함께 비빔밥으로 점심식사를 먹으며 짧지만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8개 반으로 운영되는 토요한글교실은 주한 외국인들에게 무료로 한글과 우리말을 지도하는 사역으로 주님의교회와 한국에 우호적인 마음을 증진시키고 자연스럽게 복음전파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기창 안수집사

알림

▶ 교회발전모임 첫 번째 모임

2014년 5월 당회 결의로 교회의 여러 부서에서 사역하는 성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교회 정책에 반영하고자 교회발전모임을 만들기로 하였다. 교회발전모임의 의장은 담임목사이며 구성인원은 선임목사 외에 장로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청년부, 제1여전도회, 제2여전도회, 제3여전도회, 제4여전도회, 제5여전도회, 제6여전도회에서 각 1명과 서기장로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이 모임은 교회 기획조정위원회 소속으로 교회의 발전을 위한 여러 제안을 하게 된다. 첫모임은 2014년 7월 13일 주일 오후 4시 4층 엘림실.

교회사역일정

6. 29 (주): 창립주일(26주년)	7. 6 (주): 성찬주일
7. 4~5 (금,토): 1차 전교구수련회	7. 7 (월): 정기당회
7. 11~12 (금,토): 2차 전교구수련회	7. 16 (수): 2/4분기 제직회

함글함글 카툰



엠폰드림(Up Dream) 부모 세미나 개최



교육목회원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엠폰드림” 세미나가 5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6주간 진행되었다. “엠폰드림”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엠폰드려 기도하면서 꿈을 키워간다는 의미로, “하나님나라의 자녀교육”(박원호 담임목사), “하나님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부모”(김정형 목사), “내 자녀 왜 이럴까?”(이혜경 목사), “자녀의 마음과 감정 알아주기”(문규호 전도사), “이런 자녀로 자라게 하소서”(이희영 목사), “다음세대를 양육하는 부모란?”(박상진 교수)의 주제로 이루어졌다. 강의 후에는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함글함글

신앙상담 ☎ 02-416-5183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